

■ 특특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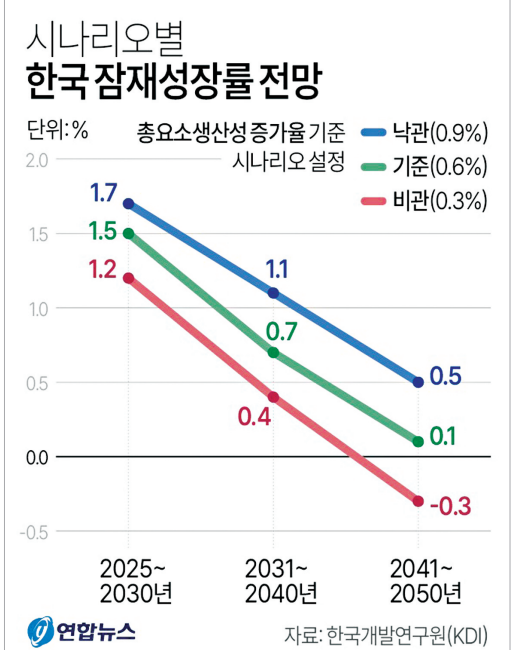
외식인플레이에 대형마트 회 잘팔려

물가 상승으로 외식비도 만만치 않게 오르면서 대형마트에서 가성비가 우수한 포장 회를 구매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에서 올해 1~4월 회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최대 25% 증가했다. ‘연어·참치·광어’ 등 매출 3대장이 인기를 끌면서 연간 수산물 매출에서 회가 차지하는 비중도 최고 3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다.

이마트는 지난 1~4월 생선회 매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10.6%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롯데마트에서도 회 매출은 올해 같은 기간 25% 성장했다. 홈플러스에서도 지난 3월부터 지난 6일까지 회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늘었다.

■ 그래픽 경제



한국 잠재성장률 2040년대 0%대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0%대로 추락하고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급격한 고령화와 자본투입 감소, 총요소생산성 둔화가 맞물린 결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공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기아 오토랜드광주 ‘지속가능 광주만들기’ 후원

시교육청·사회복지협·NGO 함께
올해 기후위기 대응 촉진 프로젝트
기아워드 누적 7억3500만원 지원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최근 민·관·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아워드 지속가능 광주만들기 Green Story 프로젝트’ 후원금 8,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아워드사업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된 기아 오토랜드광주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이다.

올해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사회복지협회의 회, 지역NGO단체와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기아워드 Green Story 프로젝트’는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속가능 광주만들기 2차 프로젝트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학생과 주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과 체험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부프로그램으로는 ‘환경탐사대’와 ‘그린마스터플래닛’이 운영된다.

환경탐사대는 광주지역 초등학교 5곳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에너지 물품 제작 체험을 통한 기후위기 인식 강화와 학교별 환경 실천



기아 오토랜드광주가 최근 ‘기아워드 지속가능 광주만들기 Green Story 프로젝트’ 후원금 8,000만원을 광주사회복지협회에 전달했다.

기아 제공

챌린지 활동을 실시해 학생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그린마스터플래닛은 광주 사회복지기관 8개소 이용주민을 대상으로 기후위기대응 필요성에 대한 환경교육과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광주 지역 사회복지시설 간 연합활동을 후원한다.

또한 올해 기아워드에서는 지역시민들을 대

상으로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선발된 이들은 역량강화를 위한 별도의 환경교육을 받는다.

교육을 수료한 서포터즈는 지역사회 환경공동체를 구성해 기아워드 지속가능한 광주만들기 Green Story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한다.

기아가 기아워드 사업을 위해 지원한 총 금액은 7억 3,500만 원에 달한다.

기아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의

필요성이 필수인 지금 기아워드 지속가능한 광주만들기 Green Story 프로젝트가 지역민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실천을 독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앞으로도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위드피에스, 한화시스템과 266억 규모 납품 계약

‘L-SAM 주전원공급유닛’ 양산
기술자립형 국방산업 중추 역할

전남 소재 방산용 전력공급체계 전문기업 ㈜위드피에스가 최근 한화시스템과 총 266억 원 규모 ‘L-SAM(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 다기능레이더(MFR)용 주전원공급유닛’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11일 전남테크노파크에 따르면 L-SAM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의 핵심전력으

로 적의 탄도미사일을 중팔 상층단계에서 요격하거나 항공기 등을 장거리에서 격추할 수 있다.

체결된 주전원공급유닛은 L-SAM의 다기능레이더에서 요구하는 고효율의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해 약 2년 간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핵심 구성품을 독자 기술로 설계·제작함으로써 미사일 방어시스템 핵심 부품의 국내 개발을 실현했다.

장비는 전력 밀도, 에너지 효율, 내구성 측면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췄다. 향후 해외 수출 가능성까지 고려해 설계돼 현재 사우

디 등 중동 국가 등을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L-SAM 수출 및 계약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매출 향상도 기대중이다.

㈜위드피에스는 순천 해룡산단에 위치한 방산 전문 중소기업으로 2020년 창립 이후 전라남도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전남국방벤처센터)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했다. 국지방공레이더, 대포병탐지레이더, 천마 현존전력 극대화사업 등 다양한 군사용 전원공급체계의 개발 및 납품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영구자석 기반 발전기 기술 및

고효율 에너지변환 기술 등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했다.

구용서 대표이사는 “이번 계약은 위드피에스가 기술자립형 국방산업 생태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무기체계 핵심 구성품의 국내 개발 및 국산화를 통해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방산강소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TP는 지역 뿌리산업의 첨단화와 미래산업으로의 사업다각화를 위해 2015년부터 뿌리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해 지원중이다. 전남도와 지역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우주항공 및 방산 등 미래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홍승현 기자

■ 전남매일 일자리 연중 캠페인

일자리 중심 민생경제 더불어 성장하는 경제도시 광주 복구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 *신중년 일자리창출 지원
- *일자리 매칭데이 운영
- *복구취업정보센터 운영
-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지원

내 일(JOB)로 내일(TOMORROW)을 도약하는 행복 복구